## 80년 5·18 당시 일본 신문 보도 행태

# "軍 비난보다 정치안정 초점"

### 5·18 30주년 한·일 특별 심포지엄

일본 신문들은 5·18민중항쟁 당시 군의 무력진압에 대한 비난보다는 한국의 조속한 정치안정화에 초점을 두는 보도행태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오는 4월30일~5월1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릴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민현정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문(5·18민중항쟁과 일본 언론)에서 밝혀졌다.

민 교수는 아사히·마이니찌·산케이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이 80년 5월28일 "군의 무력진압에 대해 한국의 다수 시민이 정치적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5월29일에 주요 일간지들이 전두환과 일본 대사의 회담내용을 보도하면서, 전두환의 신군부체제가 국내 치안을 우선으로 계속적인 민주화를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당시 일본 언론들은 불확실한 한일 관계속에서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모색하던 일본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일본 시민사회는 광주진압반대집회를 갖는 등 광주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주장했으나 일본 언론은 정부의 입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5·18관련 보도 건 수를 보면 아사히신문이 65건(2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이니찌신문 48건, 요미우리신문 40건, 산케이신문 36건, 동경신문 33건, 일본경제신문 20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남대 5·18연구소와 일본평화학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은 '저항과 평화'라는 주제로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4·19혁명 50주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일 양국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민중항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 5·18에 대한 한일양국의 시각, 한일연대의 모색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질오염 방제 훈련** 2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두동 용두교 아래에서 열린 '2010 상반기 수질오염 가상 방제 훈련'에서 광주시청,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구청 수질보전과 직원들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女연기자 60% "성접대 제의 받아"

### 32%는 성추행 피해

여성 연기자 10명 중 6명꼴로 성접대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12월 여성연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기자의 45.3%는 술 시중을 들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고, 몸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연기자도 58.3%에 달했다. 성적 농담을 듣거나 몸이나 외모 평가를 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64.5%, 67.3%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31.5%는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직접 성관계를 요구받은 연기자는 21.5%, 성폭행 같은 범죄 피해를 본 연기자도 6.5%였다.

성접대 상대는 재력가 25명(43.9%), 연출 PD 혹은 감독 22명(38.6%), 제작사 대표 13명(22.8%), 기업인 9명(15.8%), 광고주 8명(14.0%), 방송사 간부 7명(12.3%), 기획사 대표 7명(12.3%), 정관계 인사 5명(8.8%) 등이었다. /연합뉴스

# 비·천둥·돌풍…

### 광주·전남 10~30㎜ 내려

28일 광주·전남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늦게나 밤까지 이어지겠다. 내륙과 산지에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30㎜.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온 후 밤부터 점차 벗어나겠다"고 27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 해상에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4.0m로 높게 일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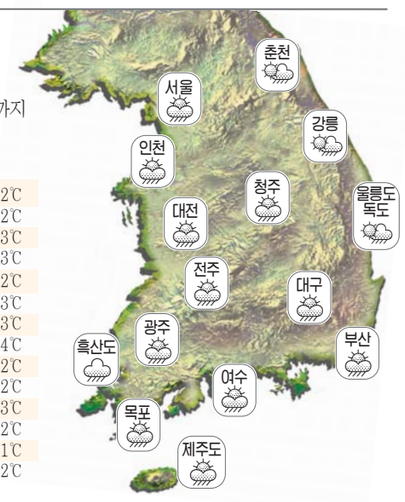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45분 / 해짐 19시 15분 — 달뜸 19시 14분 / 달짐 05시 03분

**울상 짓는 하늘**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밤까지 이어지겠다.

| | | |
|---|---|---|
| 광 주 | 가끔흐리고비 | 4/12℃ |
| 목 포 | 가끔흐리고비 | 7/12℃ |
| 여 수 | 가끔흐리고비 | 7/13℃ |
| 완 도 | 가끔흐리고비 | 6/13℃ |
| 구 례 | 가끔흐리고비 | 1/12℃ |
| 해 남 | 가끔흐리고비 | 4/13℃ |
| 장 흥 | 가끔흐리고비 | 4/13℃ |
| 고 흥 | 가끔흐리고비 | 4/14℃ |
| 순 천 | 가끔흐리고비 | 5/12℃ |
| 영 광 | 가끔흐리고비 | 5/12℃ |
| 진 도 | 가끔흐리고비 | 5/13℃ |
| 전 주 | 가끔흐리고비 | 5/12℃ |
| 남 원 | 가끔흐리고비 | 3/11℃ |
| 흑산도 | 비온뒤 흐림 | 8/12℃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2.0~3.0m |
| 먼바다 | 남서~서 | 2.0~4.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2.0~3.0m |
| 먼바다 | 남서~서 | 2.0~4.0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황사지수 |
|---|---|---|
| 보통 | 주의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서~북서 | 1.5~2.5m |
| 먼바다 | 서~북서 | 2.0~3.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1.5~2.5m |
| 먼바다 | 서~북서 | 2.0~3.0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1:48 13:53 | 07:02 19:11 |
| 여수 | 08:42 21:17 | 02:37 14:41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9(목) | 30(금) | 1(토) | 2(일) | 3(월) | 4(화)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6/16 | 6/21 | 8/22 | 10/25 | 12/23 | 11/23 |

# '스폰서 검사' 공소시효 관계 없이 조사

### 진상규명위, 의혹 폭로 정씨 대면

'검사 스폰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출범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7일 오전 서울고검 1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를 대면 조사하는 등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정씨 상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대로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중 현직 28명을 우선 소환,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전·현직 검사 57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조사대상을 100여명으로 정리했으며, 조사내용은 모두 영상녹화해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소속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정씨를 부산지검 조사실로 불러 특정 검사에게 어떤 접대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으며, 실명으로 언급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도 이르면 이번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또 접대 내역을 기록한 정씨의 다이어리와 접대에 사용됐다는 수표번호를 확보해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통화내역 조회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소시효나 징계시효를 개의치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범죄혐의를 둔 수사와 내부 감찰, 일반적 의미의 조사를 두루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있다가 26일 법원의 직권 결정에 따라 재구속됐으며, 박 지검장은 직무에서 배제됐고 한 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상태다.

/연합뉴스

# 올 봄비 최다…일조시간은 최소

### 광주기상청, 73년이후 분석

호남지방의 올 봄철 강수일이 1973년 이후 가장 많았고, 일조시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지방기상에 따르면 호남지방의 올 봄철(3월1일~4월20일) 강수일 수는 21.8일로 평년(14.4일)보다 50% 가량 많았고, 일조시간은 247.1시간으로 평년(344.6시간) 대비 72%나 적었다.

봄철 호남의 평균기온(8.0도)은 평년보다 0.3도 낮았으며, 이중 평균 최저기온(2.8도)은 평년보다 0.1도 높았으나 평균 최고기온(12.7도)은 1.3도 낮았다.

기상청은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 한파를 몰고 왔던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